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 운영

15~21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서 공연·마당극·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2021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을 운영한다.

남원시의 '한복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입는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로 봄 주간과 가을 주간 등 두차례 개최하며, 이번 가을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남원시·남원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우선 행사로 예루원 마당에서 펼쳐지는 '한복시정화'는 한복과 예술분야를 접목한 문화공연으로 재즈, 사물놀이, 성악, 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한복의 맛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남원지역 숨은 예술인들과 함께해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것으로, 서도역 인근 마을 재주꾼들이 모여 만든 시골밴드인 '사메밴드'와 젊은 청년예술인들의 모임 '연희단 청년'은 지역의 핫한 공연과 화려한 한복을 입은 남원국악과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의 협연은 아름다운 선율과 오색 빛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서담을 배경으로 '시집가는 날' 마당극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잔치와 사랑신부의 아름다움에 한층 빛을 더한 우리의 전통혼례복가 진행, 한복이 일상복이던 시절의 혼례복은 분홍빛 추억과 설레임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품격있는 한복이 기획되어 있는 '화인



남원시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2021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을 운영한다.

담'은 고풍스러운 전통한옥내 한복체험, 포토존, 한복 관련 소품 전시 등 다양한 시설로, 아름다운 한복과 장식구 그리고 격조 높은 조선 여인과 선비들의 복식을 체험하고, 광한루원 곳곳의 정취를 느끼면서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으며, 한복착용자는 광한루원 무료입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

한 방역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되며 남원과 라과 한복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양인화 관광과장은 "한복문화 가을주간은 한복의 가치가 지역의 문화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한복문화로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탄소예술 특별기획전 개최

전북대 LINC+사업단, 올해 말까지 팔복예술공장 전시실서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올해 말까지 팔복예술공장 전시실에서 전주 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공동으로 특별기획전 '예술과 매체: 영감의 시작'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획전은 탄소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탄성과 강도, 경량 등을 활용해 새로운 예술 소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작가정신을 통해 구현해 냄으로서 예술소재 뿐만 아니라 생활소재로서의 확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북지역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탄소를 이용한 예술작가 배출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전북대 LINC+사업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공동 협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탄소 소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재 기본 교육부터 작가 선정과 작품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섬유 지원과 연구원들이 참여 작가와 함께 워크숍과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작가들에게 탄소작품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에서는 탄소라는 예상치 못한 매체 특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술가의 상상력과 실험으로 재발견 되는 매체의 상호영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



탄소예술 특별기획전 포스터.

발히 활동했던 작가들이 처음으로 탄소를 접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고영호 단장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 소재의 영역을 문화예술 분야에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내 예술계열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탄소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경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14개국서 한국 책 맞춤형 홍보 행사

전 세계 14개국에서 한국 책 진출을 위한 현지 홍보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국,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14개국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과 손 잡고 현지 독자 맞춤형으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독자들이 한국 책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한글날을 전후로 한국 책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주영국한국문화원에서는 이달 런던의 중심부 소호에 있는 포일즈 서점에서 '한국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전시하고 한글날에는 한국 캘리그라피 행사를 개최한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에서는 9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국 그림책을 소개하는 영상전시 '아이들을 위한 예술'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과 문자, 영상, 소리를 융합한 이번 전시는 그림책

의 보편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도 소개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이달 초 '한류, 한국도서를 말하다' 행사를 열어 현지에서 번역, 소개된 한국도서를 전시하고 한국 책포지 디자인 기법과 시연 특강을 진행했다.

7~9월에는 홍콩, 스페인, 일본, 중국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독자 맞춤형 행사가 열렸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7월에 열린 '홍콩북페어'에서 한국 그림책을 전시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와 매달 한국 전래동화와 그림책을 동화구연으로 소개했다. 8월에는 그림책 '파란 파도'와 전래동화 '요술 항아리'로 인형극을 공연했다.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은 9월 일본에서 출간돼 인기를 모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와 함께 한국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 김겨울, 일본 서평가 에나미 미코가 온라인 작가 행사를 진행했다.

주중국한국문화원은 중국 웹툰 온라인시장이 커이킨에 소개된 한국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 '수평선', '좋아하면 울리는' 등을 중국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했다.

11월에도 국가별도 행사가 이어진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11월 중에 '마당을 나온 암탉',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저자와 '작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 문화주간 'K-문화 세계화' 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과 만난다.

한국과 수교 120주년을 맞는 주벨기에한국문화원은 11~12월 중 브뤼셀, 안트워프에 있는 서점 20여 곳에서 한국도서 독립공간을 마련해 한국 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강연을 펼친다.

호주 시드니한국문화원은 호주 대표 서점 베르켈로우 혼스비 서점과 10월 말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연다.

아프리카에서도 기획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11월 중 아부자재 화에 '한국 책 특별전'을 열어 한국 드라마 원작이 된 만화와 소설을 전시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문화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그림책' 전시 행사가 진행된다. /뉴시스

관광공사 "템플스테이·다도... 치유 위한 한국여행 홍보"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여행 테마로 'Pause in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된 후 힐링 여행지로서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정병욱 공사 LA지사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심신이 지치기 쉬울 때"라며 "템플스테이, 다도 등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치유를 위한 한국 여행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 홍보를 위해 LA 할리우드에서 있는 아트 갤러리를 대관해 한국 미술작품 관람과 다도명상이 어우러진 이색 이벤트를 지난달 30일, 이달 7일과 9일 세 차례 진행했다.

현장 이벤트에 한 참가자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지만 차 명상은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내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다른 전통문화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21일 온라인 라이브 다도 이벤트도 개최한다. /뉴시스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다기세트를 제공하고 다도 시연을 통해 한국 다도와 명상 문화를 소개한다.

공사는 한국 명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도,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걷기명상을 주제로 영상 11편을 제작해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고단한 하루의 끝', '혼자있고 싶을 때', '생각버리기' 등 상황에 맞는 추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 구석구석의 풍경과 소리, 명상 글귀가 어우러진 ASMR 영상들은 한국여행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뉴시스

고창문화관광재단, 첫 수도 마을기록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생 9명 배출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첫 수도 마을 기록가 양성 아카데미' 교육참여자 15명 중 총 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 기록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지역민이 지역 유산을 발굴·조사·연구·기획·실현하며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축적하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

수강생들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차의 과정동안 민속학, 문화연구, 기록관리, 구술

채록, 기록사진 등 생활문화 기록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며, 고창읍 매산마을, 흥덕면 내사마을, 아산면 빈인마을에서 실습활동을 진행했다.

재단은 수료생들이 전문 마을 기록가로서 생활문화 기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 마을로부터 시작되는 첫 수도 고창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체부,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링크사이트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실상 불법 연결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검색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